

‘한글 트로피부터 K-FOOD까지’ ... 한국 알리기 나서는 더 CJ컵 바이런 넬슨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이 한달 앞으로 가운데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한국 CJ그룹이 ‘한국 알리기’에 나선다.

2일 ‘STN뉴스’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해 9월 2024년부터 10년간 바이런 넬슨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는 계약을 맺었다. 지난 1944년부터 꾸준히 델러스 지역에서 열려 연간 20만명의 관중이 찾는 축제로 거듭난 이 대회는 지난 2013년 배상문, 2019년 강성훈이 정상에 오르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이경훈이 PGA투어에서 한국인 최초로 단일 대회 2연패를 달성해 한국 골프 팬들에게도 익숙한 대회이다.

이에 CJ그룹은 CJ컵의 유산과 바이런 넬슨의 전통



▲ 2022년 PGA투어 더 CJ컵에 출전한 선수들이 플레이어스 다이닝에 제공된 한식 요리를 고르고 있다. 사진=CJ그룹

성을 잘 융합할 뜻을 내비쳤다. 우선 CJ는 이번 대회에 더CJ컵의 트로피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CJ컵의 트로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과 한글을 모티브로 탄생했다. 이번 대회부터는 역대 우승자들의 이름까지 한글로 새겨 의미를 더한다.

주최 측은 PGA투어 선수와 골프 팬들에게 한식을 제공해 K-푸드의 세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출전 선수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플레이어스 다이닝에서 비비고 브랜드의 제품을 이용해 요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올해 새롭게 탄생한 더CJ컵 바이런 넬슨을 기념해 새로운 메뉴도 선보일 예정이다. 메뉴 선정에는 한국 팬들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현장에서도 비비

고 컨세션을 운영해 비비고 주력 제품인 만두를 비롯해 다양한 한식의 매력을 소개하는 한편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통해 ‘한식으로 더 맛있는 일상’을 뜻하는 ‘Live Delicious’의 가치를 전달할 방침이다.

2017년부터 열린 더CJ컵의 사회공헌 활동인 브릿지 키즈 프로그램도 이어간다. 브릿지 키즈는 PGA투어 선수들이 골프 꿈나무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안병훈(33·CJ)이 포함된 PGA투어 스타들이 델러스 지역 및 한인 골프 유명주 10명을 만날 계획이다.

CJ그룹 관계자는 “‘더 CJ컵 바이런 넬슨’이 K-푸드와 K-컬처의 우수성을 전세계 많은 골프 팬들에게 알리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스포츠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CJ컵 바이런 넬슨은 오는 5월 2일부터 나흘간 텍사스주 델러스 TPC크레이그랜치에서 열린다. 총 156명의 선수가 총상금 950만 달러를 놓고 경쟁을 펼친다.

속옷 다 비쳐서 민망 ... MLB ‘시스루 유니폼’ 논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올해 새 유니폼이 논란이다. 속옷이 다 비치는 얇은 소재로 이뤄졌기 때문인데 현지에서는 이른바 ‘시스루 유니폼’으로 불리고 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 PBS는 ‘메이저리그, 종잇장 같은 유니폼 논란과 함께 개막’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선수들의 유니폼을 조명했다.

PBS에 따르면 선수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속옷이 비치는 유니폼 바지를 두고 한 선수는 “종이 같다”며 “아웃렛에서 파는 싸구려 운동복 같다”고 지적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유격수 트레이너 터너(30)는 “모두가 유니폼을 싫어한다”고 전했다.

문제의 유니폼은 MLB 개막 전부터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13일 보도에서 유니폼 디자인과 생산을 맡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파나틱스에 주목했다. MLB는 2020년 두 회사와 10

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논란이 일자 나이키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선수, 팀, 리그와 긴밀히 협력해 MLB 역사상 가장 진보한 유니폼을 만들었다”며 “선수 유니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수, 제조 협력사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니폼 바지는 지난 시즌과 동일한 소재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키는 다양한 옵션의 유니폼을 제공하기 위해 선수 300명의 체형을 측정했다. 선수들은 슬림형, 스탠더드형, 운동형, 근육형 등 네 가지로 제작된 바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NYT는 “그런데도 새 유니폼은 품질 면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라고 지적했다.



▲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왼쪽)와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하의에 넣은 삼의가 비쳐보인다. 사진=USA TODAY Sports

콜로라도 로키스의 투수 다니엘 바드(38)는 NYT와 인터뷰를 통해 “내가 MLB에 발을 들였던 2009년의 유니폼은 완벽에 가까웠다”며 “새 유니폼은 소재가 달라져 부드럽지 않다”고 전했다.

누리꾼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니폼을 거세게 비난했다. 한 MLB 팬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가 와서 바지가 비쳐 보일 땐 어떻게 할 거냐”며 선수들이 앉아 있는 프로필 사진에도 “다 비쳐서

민망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한 X(옛 트위터) 사용자가 올린 ‘란제리 대신 파나틱스 야구 바지’라는 내용의 게시물은 3만3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Sandy Kim 라인댄스 초급반 오픈

NOW OPEN

제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샌디 김의 라인댄스 초급반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초급반>
월·목요일: 오전 9시~10시 15분
<중·고급반>
월·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등록비>
일주일에 두 번 참여시 월 \$80
한 번 참여시 월 \$45
* 한국어로 수업 진행 *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춤!

- 스트레칭 해소
- 정신 건강 증진
- 만성질환 예방
- 치매 예방 효과

T.562.279.4200 | 305 E.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